



HR솔루션사업본부

이하나 강사

“무엇을 배우든 재미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시도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사님의 간략한 프로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럿글로벌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하나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만 단신으로 일본에서 주재원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걸 계기로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 시 아버지의 조언으로 일어일문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대학생활을 하는 내내 일본을 왕래하며 여행도 하고 통역도 하는 한편, 교직 이수를 하여 중등학교 일본어 정교사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대학 졸업후엔 일본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 및 졸업하고 이후로 지금까지 일본어와 한국어를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캐럿글로벌에서 일한 지는 올해로 6년차가 되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일본어 학습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일본어의 언어체계는 전세계 다른 어떤 언어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어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 들어 보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노력하는 만큼 말문이 빨



리 트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든 재미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일본어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시도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코로나 상황때문에 우리는 모두 격리 아닌 격리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지난 3년간, 관심분야의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 지금껏 학습한 레벨에 맞는 도서를 읽는 것, 좋아하는 연예인의 SNS를 방문해 보는 것, 나아가 주제를 정해 짧은 발표를 해 보는 것 등을 시도해 왔습니다. 교재를 살짝 벗어나더라도 학습자의 관심과 호기심이 뒷받침될 때, 그 결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이제 코로나도 엔데믹으로 전환되어서 요즘 일본으로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껏 다져온 일본어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강사를 꿈꾼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를 전공했지만, 한국어도 전공했으니 둘 다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강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인지, 가르치는 일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어제 공부하는 맛과 오늘 공부하는 맛이 매번 다른 것 같아요.

생활에 비타민이 있다면? 힘을 얻는 에너지가 무엇인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집 근처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사람이 많지 않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좋아하는 일본드라마를 보거나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저에게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일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여행을 한 게 코로나 직전이니 저도 이번에 꼭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요.

수업을 하면서 현재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다가 '소구하다'라는 한국어 동사를 처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고객에게 상품을 홍보하여 구매하고 싶은 마음을 유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보고 바로 든 생각이 '와, 내가 어디 가서 한국어 가르친다고 하면 안되겠다'라는 거였어요. 한국사람이 한국어를 모르는 것처럼, 저는 저의 모든 학습자들에게 모를 수 있고, 다 알지 못해도 괜찮으니 일단 입을 열어 말해 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려도 괜찮고요.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가 입밖으로 낸 단어, 구절, 문장이 모여 자기 것이 된다고 꼭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는 항상 짧게 근황을 묻는 질문을 하곤 하는데, 캐럿의 학습자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어서 일터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야기를 소소하게 하는데, 이게 쌓여서 어느 순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COVID-19를 계기로 비대면 수업 진행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와 학습자 호응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객사가 100% 재택근무로 근무형태가 바뀐 곳도 있고, 간헐적으로 출근하는 곳도 있는데, 근무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어디에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을 큰 장점으로 보는 학습자가 많습니다. 대면 수업시에는 수업 시간에 강사가 준비한 동영상 보여주는 것이, 보안 등의 이유로 스마트기기를 들고 고객사를 드나드는 게 매우 번거로운 곳도 있어서 쉽지 않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학습자들도 공유하고 싶은 영상, 문서 등을 수업시간에 모두와 쉽게 공유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워야 하는 목표만 분명하다면 오히려 앞으로는 비대면 수업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캐럿글로벌이 타사와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 강사를 소중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타사와도 일해 보았지만, 캐럿만큼 강사를 챙기는 곳은 정말 없었어요. 매니저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느껴지고 무엇보다 매니저님들이 강사들과 많이 소통하며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맡든 강의만 하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요청이 있는 강의에 최적의 강사를 연결하는 캐럿의 섬세함이 타사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광고의 카피가 떠오르는데, 캐럿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